“공장식 축산 넘어 동물과 공존하는 세상 꿈꿔요”

전라도서 활동 중인 동물권 단체 ‘새벽이생추어리’

동물실험 구조 돼지·닭 등 돌봐…체험형·동물원 형태 주의해야
활동 기록집 ‘돌봄이 널뛰는 자리’ 출간 앞두고 21일 북토크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시옷새생이가 돼지 ‘잔디’에게 밥을 주고 있다. 〈새벽이생추어리 제공〉

2019년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종돈장에서 태어난 돼지 ‘새벽’은 곧바로이빨과 꼬리가 잘렸고 마취없이 거세당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곰팡이성 피부염까지 앓고 있었지만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했다. 새벽은 생후 2주 차에 동물권 단체 디엑스이코리아의 활동가에 의해 한국 최초로 공개구조(구조자와 피구조자의 신원이 사회에 밝혀진 상태에서 구조하는 것)됐다. 활동가들은 동물 해방의 새벽을 연다는 의미를 담아 돼지에게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새벽의 이름을 딴 동물권 단체 새벽이생추어리(Dwan Sanctuary)는 지난 2020년 4월 설립된 국내 첫번째 동물 생추어리이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다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로 부터 비교적 안전한 전남지역으로 옮겨왔다.

단체는 공장식 축산·동물실험 등 산업에서 삶을 착취 당한 동물들이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한다. 새벽이 외에도 2021년 실험 동물로 길러진 돼지 ‘잔디’를 구조해 생추어리에 입주시켰고 올해 여름에는 도로에 앉아있던 오리 ‘더덕’과 생후 30일 가량 된 병아리 ‘뿌리’(현재는 닭)를 가족으로 맞이했다.

이들은 편견과 혐오로 얼룩진 동물에 대한 이미지를 깨부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돼지를 멸칭으로 사용하는 고정관념에 맞선다.

“새벽이는 코로 흙을 파며 냄새를 맡고, 들판에 자란 풀을 뜯어 먹는 것을 좋아해요. 신이 날 때는 언덕을 성큼성큼 내달리고 날씨가 더울 때는 진흙탕에 몸을 풍덩 담가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죠. 잠들기 전 지푸라기 침대를 몸에 꼭 맞게 정돈하는 일도 잊지 않아요. 종종 타인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돼지’는 우리 편견과는 다른 동물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회에서 배제되고 오인된 존재들의 본래 모습과 고유함에 주목하고 싶어요.”

생추어리 활동가들이 동물들을 돌보며 갖는 가장 큰 애로는 의료 지식이다.

“돼지, 오리, 닭을 케어하며 가장 힘든 점은 한국의 공장식 축산업에서 정해놓은 6개월령 이후의 삶이에요. 먹기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이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죠. 다양한 병과 노화 등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동물 생추어리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중이다.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 구례에는 국내 첫 반달가슴곰 생추어리가 지어졌다.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는 “생추어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칫 체험형, 동물원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동물들이 목적이나 가치를 갖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전시되거나 인간에 의한 오락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도로 보금자리를 옮긴 이들의 2026년 계획은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더 많이 호흡하는 것이다. 동물권은 수도권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이슈라는 점에서다.

그 일환으로 새벽이생추어리는 그동안의 활동을 담은 기록집 ‘돌봄이 널뛰는 자리’ 출간을 앞두고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 충장로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에서 북토크를 연다. 북토크에서는 생추어리 거주 동물 소개와 돌봄 루틴과 에피소드, 동물권과 생추어리 담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의사회·(사)고사모, 화순전남대병원에 지원금 전달

광주시의사회와 사단법인 고려인을사랑하는의료인모임(이하 고사모)이 지난 10일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 중인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치료지원금 2000만원을 화순전남대병원에 전달했다. 〈사진〉

이번 치료비 지원은 지역 의료계가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의 치료 부담을 덜고자 뜻을 모아 추진한 나눔 활동이며, 지원금은 지난 11월 개최된 ‘백혈병 소아암 환우 및 고려인 광주진료소 후원 제3회 희망나눔 콘서트’ 수익금 일부로 조성됐다.

광주시의사회와 고사모는 고려인 진료소 운영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올해는 소아암 환아 지원까지 나눔의 범위를 확대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77호점 개보수 지원

광주은행은 “지난 11일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77호점 선정식을 갖고, 광주시 서구 맨투맨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광주은행이 지역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는 광주·전남 46개 지역아동센터의 개보수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맨투맨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교생 등 다양한 연령대 아동이 이용하고, 야간 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시설인 만큼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고 광주은행은 2000만원을 지원해 학습 공간 개선에 나섰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으쓱 봉사단, 취약계층 김장 나눔 봉사활동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여수시 문수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개발공사 소속 으쓱(ESG)봉사단 20명을 비롯, 문수동새마을부녀회 등과 함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사례 공유

전남도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진도 쏠비치에서 광역,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전남도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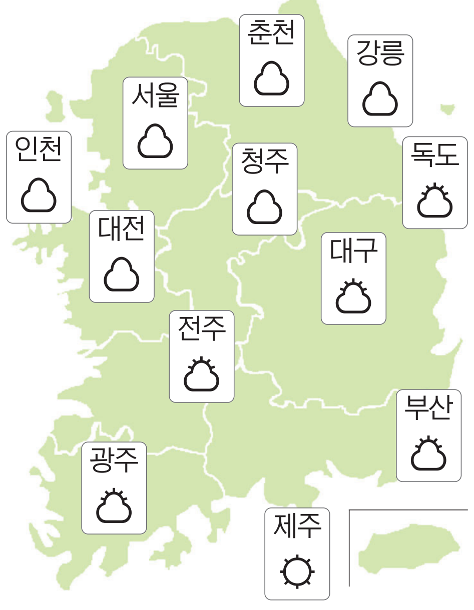
해뜸	07:33	달뜸	03:03
해짐	17:22	달짐	14:00

도로 살얼음 주의

바람 강해 더 추워요.

광주	구름많음	0/10	보성	맑음	-3/9
목포	구름많음	2/9	순천	맑음	-1/10
여수	맑음	2/10	영광	구름많음	1/9
나주	구름많음	-1/10	진도	구름많음	3/10
완도	구름많음	2/12	전주	구름많음	-1/9
구례	구름많음	-1/9	군산	구름많음	-1/9
강진	구름많음	-1/11	남원	구름많음	-2/8
해남	구름많음	0/11	흑산도	구름많음	6/11
장성	구름많음	-1/9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0
	먼바다(북)	1.0~3.0	0.5~1.5
	먼바다(남)	1.0~3.0	0.5~1.5
남해서부	앞바다	0.5~1.5	0.5
	먼바다(서)	1.5~3.0	0.5~2.0
	먼바다(동)	1.0~3.0	0.5~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42	10:59
	16:32	22:53
여수	12:11	06:19
	-:-	17:56

◇ 생활지수

미세먼지	좋음

◇ 주간 날씨

16(화)	17(수)	18(목)
2/13	5/11	0/12

19(금)	20(토)	21(일)
1/14	5/15	7/13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5 FAX 062-222-4918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675-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